

Market Intelligence

1. 세계 경제 및 금융 동향 1

[참고자료] 주요 경제지표

2. 주간 이슈 4

- 2014년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시사점

주요 동향

◇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최종 합의(12.12.)

- 지구 온도 상승폭 산업화 이전 대비 1.5°C로 제한(기존 목표 2.0°C)
 - '파리 협정'은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1997년 교토 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 지켜야 하는 첫 세계적 기후 합의
- 신기후변화체제는 5년마다 이행사항에 대한 검토를 받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됨.
 - 이행사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었던 교토체제와 달리, 이번 체제는 법적 구속력을 확보했으며, 2023년에 첫 이행검토가 이루어질 예정
-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매년 최소 1000억달러(약 118조원)를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돕기 위한 기금 조성

◇ OECD 경기선행지수 부진 지속, 전월 수준인 99.8 기록

- 10월중 OECD 경기선행지수는 전월 수준인 99.8을 기록, 5월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지속
 - ※ OECD 선행지수 : 100.1(6월)→100.0(7월)→99.9(8월)→99.8(9월)→99.8(10월)
 - 4개월 연속 기준선인 100.0 이하를 기록해 글로벌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냄.
- 유로존 지수는 전월보다 소폭 상승한 100.6(0.02↑)로 전체 평균을 상회했으나, 미국(99.1, △0.12), 영국(99.3, △0.20) 등은 둔화 지속
- 브라질(99.3, 0.22↑), 중국(98.4, 0.08↑)은 각각 3개월, 2개월 연속 전월대비 소폭 상승

주요 동향

◇ 일본, 3분기 GDP 증가세로 반전

- 일본의 3분기 GDP가 전분기대비 0.3% 증가, 잠정치(-0.2%) 및 시장추정치인 전분기 대비 보합(0%) 수준을 상회
- ※ 일본 GDP 성장률(% , 전기대비) : 0.5(14.4분기)→-1.1(15.1분기)→△0.1(2분기)→0.3(3분기)
- 기업 설비투자가 증가세(0.6%)로 바뀐 영향이 컸으며, 3분기 법인통계에서도 설비투자가 전년동기대비 11.2% 증가
- 10월 경기선행지수도 전월대비 1.3p 올라 4개월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으며, 경기동행지수도 전월대비 2.0p 오른 114.3으로 2개월 연속 상승
- ※ 일본 경기선행지수: 106.7(6월)→105(7월)→103.5(8월)→101.6(9월)→102.9(10월)
- ※ 일본 경기동행지수: 113.3(6월)→113.1(7월)→112.2(8월)→112.3(9월)→114.3(10월)

◇ 인도, GDP 성장률 중국 추월

- 인도 3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7.4%를 기록, 동기간 중국 성장률(6.9%)을 추월, 시장 전망치(7.3%)도 상회
- ※ 인도 GDP 성장률(% , 전년동기대비) : 6.6(14.4분기)→7.5(15.1분기)→7.1(2분기)→7.4(3분기)
- 제조업 성장률(9.3%)이 전년(7.9%)에 비해 크게 상승하면서 지난 3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해 전체 성장률 견인

◇ 중국, 해외쇼핑제품 수입 관세 인하 · 한국 수출 확대 전망

- 중국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많이 구입하는 일부 소비품목의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 중국 여행객들의 해외 쇼핑을 내수 소비로 돌리기 위한 목적
- 올해 중국인 해외 원정쇼핑 규모는 2,000억 달러(236조2천억원) 수준으로 3년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
- 전기밥솥, 커피메이커, 화장품, 모직의류, 분유 등 영유아 식품, 면도기, 선글라스 등 787개 품목에 대해 평균 50% 관세 인하
- 일부 품목은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뛰어나고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인하폭보다 커서 한국 기업들의 수출 증가 기대

참고자료

주요 경제지표

① 외환시장

구 분	'14년말	'15.12.4	'15.12.11	전주비
₩/US\$	1,088.5	1,156.7	1,179.5	22.8
₩/100¥	910.12	943.6	966.5	22.9
CNY/US\$	6.2020	6.4011	6.4553	0.0542
¥/US\$	119.09	122.6	122.0	△0.6
US\$/€	1.2174	1.0938	1.0937	△0.0001

② 채권시장

구 분	'14년말	'15.12.4	'15.12.11	전주비
한국 국고채(3년)	2.10	1.78	1.75	△0.03
미국 국채(10년)	2.17	2.31	2.23	△0.08

③ 주식시장

구 분	'14년말	'15.12.4	'15.12.11	전주비
한국 KOSPI	1,915.59	1,974.40	1,948.62	△25.78
미국 DJIA	17,823.07	17,847.63	17,265.21	△582.42

④ 해운시장

구 분	'14년말	'15.12.4	'15.12.11	전주비
BDI 지수*	780	563	522	△41
HRCI 지수**	538.1	476.4	468.7	△7.7

*Baltic Dry Index: 벌크선 운임지수

**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컨테이너선 용선지수

⑤ 유가

(US\$/배럴)

유 종	'14년말	'15.12.4	'15.12.11	전주비
WTI유 현물	53.27	39.97	35.62	△4.35
Brent유 현물	57.33	43.00	37.93	△5.07
두바이유 현물	60.11	38.93	35.42	△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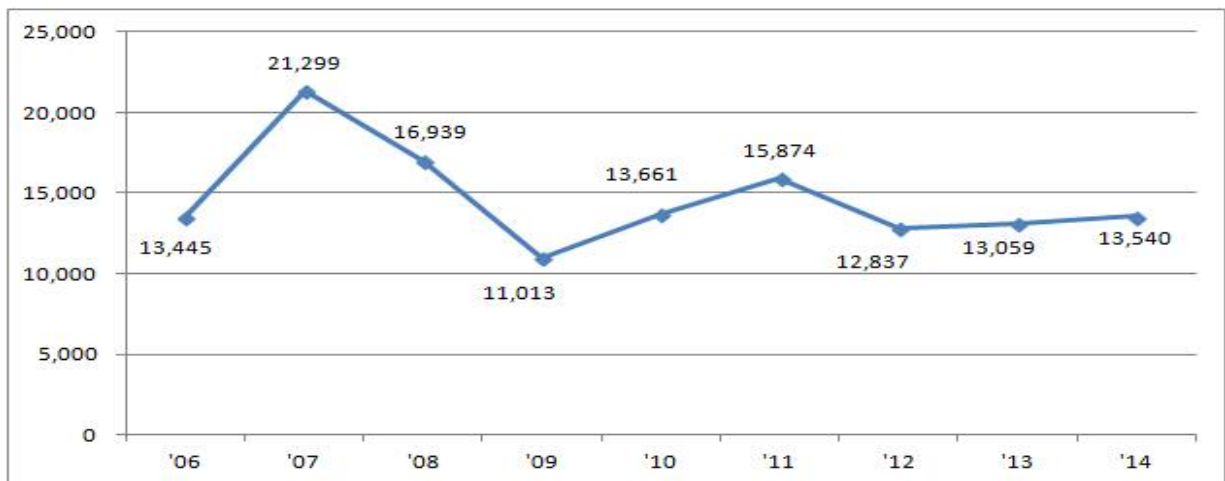
- ◆ 당행은 '99년부터 해외직접투자 통계를 작성하여 왔는바, 전세계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동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세계 해외직접투자 동향

- (투자액) '14년 투자액은 전년대비 3.7% 증가한 1조 3,540억 달러 기록
 - 중국, 홍콩 등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그린필드형* 투자뿐만 아니라 M&A 투자가 활발한 양상을 보이며, 세계 해외직접투자액은 '12년 이후부터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 투자대상국의 용지를 직접 매입하여 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짓는 방식의 투자
- '06년 최초로 1조 달러를 돌파한 후, '07년 2조 달러를 초과하는 등 가파른 성장을 보이던 세계 해외직접투자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11년 유럽 재정위기 후 급감하여 최근 수년간 1.3조 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중

<세계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억 달러)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5

- (경제권별 동향) 투자액(유출) 중 개발도상국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투자유치(유입)의 경우 개발도상국이 55.5%의 비중을 차지, 최초로 선진국 비중을 추월

<2014년 경제권별 해외투자액 구성>

(억 달러)

구 분	투자액	비 중	투자유치액	비 중
선진국	8,228	60.8%	4,988	40.6%
개발도상국	4,681	34.6%	6,814	55.5%
체제전환국*	631	4.6%	481	3.9%

* 보스니아, 세르비아 등 동남부 유럽국가 및 CIS국가 등이 포함됨.

- (선진국) 투자액은 전년대비 1.3% 감소한 8,228억 달러로 '12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투자유치액 또한 글로벌 다국적기업의 對 북미 투자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28.4% 감소한 4,988억 달러를 기록
- (개발도상국)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새로운 투자자로 부상하며 투자액은 전년대비 22.9% 증가한 4,681억 달러를 기록 하였으며, 투자유치액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6,814억 달러를 기록
- (체제전환국) 지역분쟁발생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투자 위축 등으로 투자액 및 투자유치액 모두 전년대비 각각 31.1%, 51.7% 감소한 631억 달러 및 481억 달러를 기록

<투자(유치)액 규모별 투자국 분포>

구 모	투 자			투자유치		
	선진국	개발도상국	체제전환국	선진국	개발도상국	체제전환국
1,000억 달러 초과	미국, 일본, 독일	중국, 홍콩			중국, 홍콩	
500억 달러 ~ 1,000억 달러	캐나다		러시아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싱가폴, 브라질	
100억 달러 ~ 500억 달러	프랑스, 스페인 등	한국, 싱가포르 등		스페인, 폴란드 등	칠레, 멕시코 등	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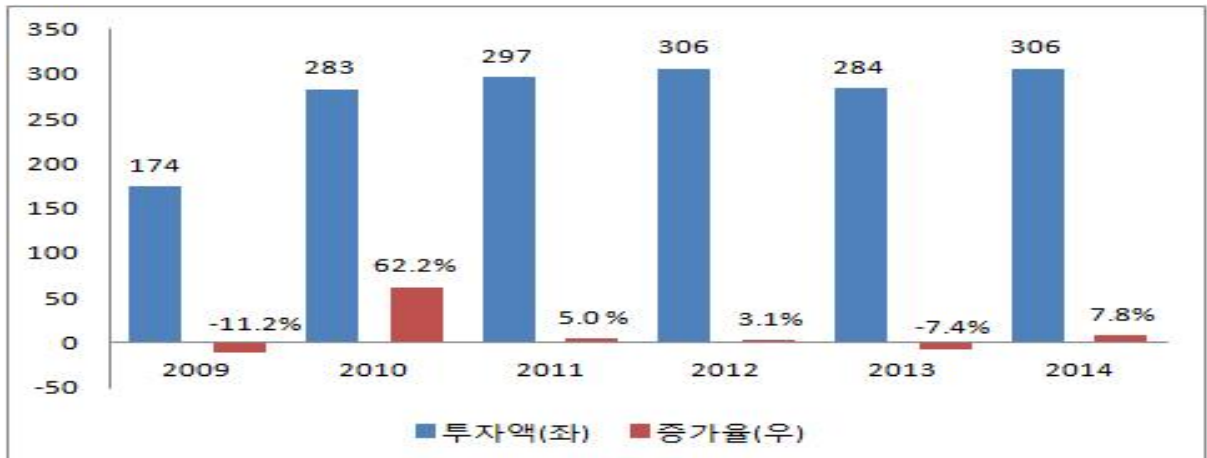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액 306억 달러, 투자유치액 99억 달러 기록

2.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동향

- (투자액) '14년 투자액은 전년대비 7.8% 증가한 306억 달러 기록
 - '06년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한 후, '07년 200억 달러, '12년 3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등 금융위기 이후 세계 해외직접투자 성장흐름보다 더 높은 성장세 지속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동향>

(억 달러)



□ (경제권별 구성) 선진국 앞 투자비중은 세계 평균(40.6%) 대비 6.5%p 높은 수준이나,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 앞 투자비중은 세계 평균(각각 55.5% 및 3.9%) 대비 각각 4.0%p, 2.5%p 낮음.

○ 한편,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특정국가 집중도가 높아, '14년 투자대상 상위 5개국(미국, 중국, 호주, 베트남, 사우디) 앞 투자비중이 49.6%에 달함(세계 평균 37.8%).

□ (업종별 구성) 서비스업(52.6%) 및 1차산업(20.4%)에 대한 투자비중이 세계(각각 50.6%, 7.5%) 대비 높은 편이며, 제조업(27.0%)의 경우 세계(41.9%)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

○ 우리나라 서비스업 투자의 경우 부동산업(28.1%), 금융보험업(27.9%), 도소매업(10.6%)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세계 전체 기준으로는 컨설팅·시설관리 등 사업지원서비스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

* 세계 제조업 투자비중 : ('11) 44.5% → ('12) 40.3% → ('13) 37.6% → ('14) 41.9%
 우리나라 제조업 투자비중 : ('11) 30.7% → ('12) 28.9% → ('13) 32.0% → ('14) 27.0%

□ (진입방식별 구성) '14년 M&A 투자비중은 26.2%로 세계(36.4%) 대비 낮은 수준이나, 전년대비 3.7%p 상승하였음.

* M&A 투자 비중 : ('11) 25.3% → ('12) 23.3% → ('13) 22.5% → ('14) 26.2%

3. 우리나라 해외 현지법인 경영실적

- (분석대상) '14년말 투자잔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비금융보험업 현지법인 8,490개사 중 자료제출법인 5,666개사 대상(투자잔액 기준 전체 현지법인 46,948개사의 68.1% 해당)
- (경영실적) 성장성 및 수익성이 둔화된 가운데 안정성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

<현지법인과 국내기업의 주요 경영지표>

(%)

구 분	현지법인			국내기업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21.8	10.7	△3.2	5.1	2.1	1.3
	총자산증가율	22.1	9.3	6.7	5.1	4.6	4.3
수익성	영업이익률	3.6	3.6	3.2	4.1	4.1	4.0
	당기순이익률	2.2	1.8	1.7	2.5	2.0	2.5
안정성	부채비율	169.9	161.4	164.8	147.6	141.0	134.5
	차입금의존도	25.7	25.5	28.0	31.9	31.5	32.2

자료: 당행 데이터베이스, 한국은행 '2014 기업경영분석'

- (성장성) 중남미지역(광업·도소매업) 및 아시아·아프리카 지역(도소매업) 현지법인의 매출 감소로 인해 매출액증가율이 전년대비 크게 하락(10.7%→△3.2%)하며 성장성 둔화 추세 지속
 - (매출구성) 업종별로는 제조업(51.4%)과 도소매업(39.1%)이 전체 매출액의 90.5%를 차지하였으며, 국가별로는 중국(33.4%)과 미국(17.7%)이 전체 매출액의 51.1%를 차지
- (수익성) 영업이익률은 전년대비 0.4%p 하락한 3.2%를 기록하였으며, 당기순이익률은 전년(1.8%)과 비슷한 수준인 1.7% 기록
 - 제조업(2.8%→2.9%)과 광업(△1.3%→2.3%)의 수익성(당기순이익률)은 전년대비 개선되었으나, 도소매업(1.3%→0.7%)은 전년대비 하락
 - 미국 투자는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수익성이 개선(0.9%→1.7%)되었으나 중국 투자는 경제 성장세 둔화에 따른 제조업 및 도소매업 법인의 매출·영업이익 감소로 인해 수익성이 소폭 하락(3.5%→3.3%)
- (안정성) 부채비율 164.8%, 유동비율 129.8%, 차입금의존도 28.0%로 안정성지표는 모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 (투자효과) 투자수익률은 전년대비 하락하였으나, 배당금수취액 및 무역수지효과는 개선세 시현

- (투자수익률) 투자자순이익 및 로열티 수익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3.5%p 하락한 9.0%의 투자수익률 기록
- (배당금) 한국투자자 앞 배당금 지급액은 58.6억 달러로 전년 54.5억 달러 대비 7.5% 증가

<현지법인 투자수익률 및 배당금>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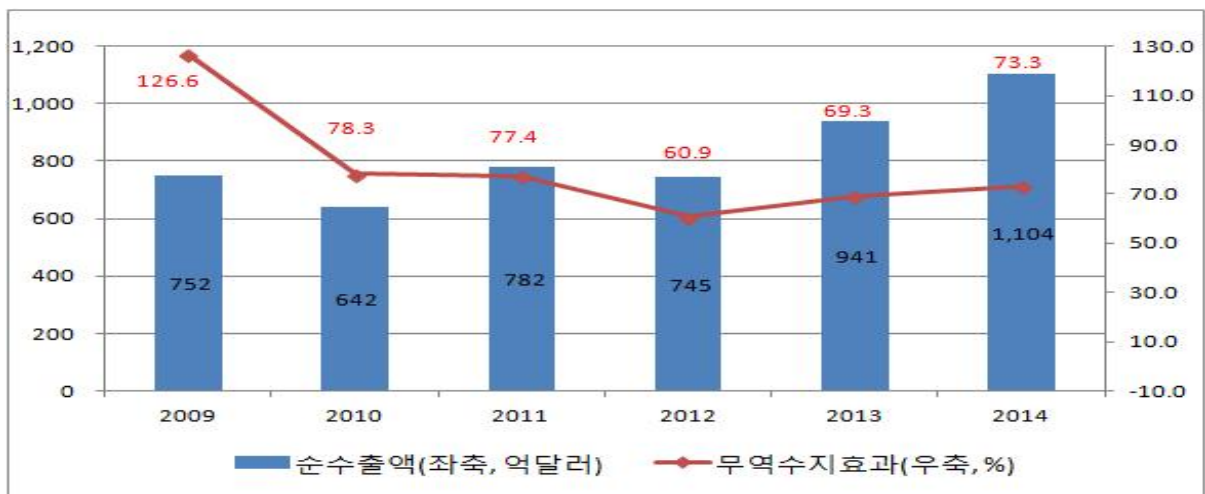
구 분	투자수익				투자잔액 (B)	투자수익률 (A/B)	배당금
	투자자순이익	로열티	대부이자	합계(A)			
2014년	7,862	5,381	353	13,596	150,551	9.0	5,860
2013년	10,923	5,719	275	16,917	135,801	12.5	5,453
2012년	10,211	4,284	201	14,696	122,465	12.0	4,274
2011년	8,382	3,046	264	11,692	100,996	11.6	2,731
2010년	7,277	2,226	89	9,592	82,024	11.7	1,650

- (무역수지효과) 현지법인 앞 순수출액*을 투자잔액으로 나눈 무역수지 효과는 73.3%로 전년대비 4.0%p 상승

* 현지법인 앞 수출액에서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수입액을 차감하여 산출

- 현지법인앞 수출액은 2,241억 달러로 우리나라 총 수출액(5,727억 달러)의 39.1% 차지

<현지법인 앞 순수출 및 무역수지효과 추이>



4. 시사점

- 해외직접투자로 인해 유발되는 현지법인 앞 무역수지효과*, 배당금 및 로열티 수입 등을 고려할 때, 해외직접투자가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4년 중 현지법인 앞 순수출액(현지법인과외의 수출액 - 수입액)은 1,104억 달러, 배당금 및 로열티 수입은 각각 59억 달러, 54억 달러 기록
 - * 무역수지효과(순수출액 ÷ 투자잔액) : ('12) 60.9% → ('13) 69.3% → ('14) 73.3%
-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경제지위에 상응하는 규모*를 갖추었으나, 투자구성 측면에서 유망 서비스업 투자 활성화 및 M&A투자 촉진이 필요
 - * 해외직접투자 규모 순위 : ('11) 16위 → ('12) 12위 → ('13) 13위 → ('14) 13위
 - 생산기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중심 하드웨어 투자에서 발전하여, IT·문화·금융 등의 소프트웨어 수익기반 강화를 위한 서비스업 투자 활성화 추진
 - M&A투자는 빠른 시장진입, 시너지 발생 등의 장점을 갖고 있어 널리 이용되는 해외투자방식으로,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기업통합전략을 준비하여 해외M&A에 적극 참여 필요

확인자	팀 장 이윤관
작성자	책임조사역 권기영

<참고자료 1>

국가별 해외직접투자액

(억 달러)

구 분	2012		2013		2014	
	투자액	순위	투자액	순위	투자액	순위
미 국	3,113	1	3,283	1	3,369	1
홍 콩	834	4	808	5	1,427	2
중 국	878	3	1,010	3	1,160	3
일 본	1,225	2	1,357	2	1,136	4
독 일	661	6	301	10	1,122	5
러시아	488	8	865	4	564	6
캐나다	539	7	505	7	526	7
프랑스	316	11	250	15	429	8
네덜란드	52	32	569	6	408	9
싱가포르	151	20	288	12	407	10
아일랜드	153	19	240	16	318	11
스페인	40	186	258	14	307	12
대한민국	306	12	284	13	306	13
이탈리아	80	26	308	9	235	14
노르웨이	196	16	210	17	192	15
스위스	433	9	102	25	168	16
말레이시아	171	17	141	22	164	17
쿠웨이트	67	29	166	19	131	18
칠 레	171	18	76	29	130	19
대 만	131	21	143	21	127	20
스웨덴	290	13	289	11	122	21
덴마크	74	28	95	26	110	22
인 도	85	25	17	45	98	23
벨기에	340	10	179	18	85	24
태 국	105	24	121	24	77	25
오스트리아	131	22	162	20	77	26
인도네시아	54	31	66	31	71	27
필리핀	17	44	36	36	70	28
남아프리카공화국	30	37	66	30	69	29
카타르	18	42	80	27	67	30

<참고자료 2>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

(억 달러)

구 분	2012		2013		2014	
	투자유치액	순위	투자유치액	순위	투자유치액	순위
중 국	1,211	2	1,239	2	1,285	1
홍 콩	702	4	743	3	1,033	2
미 국	1,697	1	2,308	1	924	3
영 국	594	6	477	9	722	4
싱가포르	567	7	648	6	675	5
브라질	653	5	640	7	625	6
캐나다	393	11	706	4	539	7
호 주	558	8	542	8	519	8
인 도	242	14	282	15	344	9
네덜란드	177	19	320	14	303	10
칠 레	250	13	166	21	229	11
스페인	257	12	417	12	229	12
멕시코	190	17	446	10	228	13
인도네시아	191	16	188	19	226	14
스위스	160	22	-226	207	219	15
러시아	506	9	692	5	210	16
핀란드	42	49	-52	205	186	17
콜롬비아	150	24	162	22	161	18
프랑스	170	20	429	11	152	19
폴란드	71	42	1	151	139	20
태 국	92	35	140	24	126	21
터 키	133	27	124	26	121	22
이탈리아	1	164	250	16	115	23
말레이시아	92	34	121	27	108	24
아랍에미리트	96	31	105	30	101	25
스웨덴	163	21	36	49	100	26
대한민국	95	32	128	25	99	27
카자흐스탄	133	26	102	32	96	28
몰 타	121	29	96	33	93	29
베트남	84	37	89	35	92	30

<참고자료 3>

지역별 투자액 추이

(억 달러)

지역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년대비
세계	13,661	15,874	12,837	13,059	13,540	3.7%
선진국	9,632	11,561	8,729	8,336	8,228	△1.3%
유럽	5,659	5,868	3,764	3,168	3,159	△0.3%
북미	3,125	4,487	3,653	3,789	3,896	2.8%
기타	848	1,206	1,312	1,379	1,173	△14.9%
개발도상국	3,409	3,576	3,572	3,808	4,681	22.9%
아프리카	93	65	124	160	131	△18.0%
아시아	2,841	3,136	2,994	3,353	4,316	28.7%
중남미	468	353	421	278	226	△18.1%
대양주	7	9	16	11	2	△85.0%
체제전환국	620	737	536	915	631	△31.1%

지역별 투자유치액 추이

(억 달러)

지역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년대비
세계	13,281	15,637	14,029	14,672	12,283	△16.3%
선진국	6,732	8,274	6,787	6,969	4,988	△28.4%
유럽	4,048	4,897	4,007	3,255	2,888	△11.3%
북미	2,264	2,695	2,089	3,014	1,463	△51.5%
기타	420	682	690	700	637	△8.9%
개발도상국	5,799	6,391	6,390	6,708	6,814	1.6%
아프리카	441	477	564	540	539	△0.1%
아시아	4,019	4,253	4,008	4,279	4,653	8.7%
중남미	1,317	1,639	1,780	1,862	1,594	△14.4%
대양주	22	23	37	28	28	△0.3%
체제전환국	750	972	852	995	481	△51.7%

<참고자료 4>

우리나라 현지법인의 경영지표 추이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25.8	15.6	21.8	10.7	△3.2
	제조업	36.3	20.1	25.0	10.4	4.3
	중 국	36.1	24.3	18.8	27.3	△3.6
	미 국	11.2	16.3	36.0	6.4	4.5
	총자산증가율	18.8	18.6	22.1	9.3	6.7
	제조업	17.3	13.5	26.6	8.9	13.0
	중 국	19.6	17.8	21.2	20.2	5.9
	미 국	12.2	29.1	22.7	14.1	19.6
수익성	영업이익률	3.0	3.6	3.6	3.6	3.2
	제조업	3.6	3.4	4.5	4.5	4.1
	중 국	3.9	3.9	4.3	4.9	4.6
	미 국	1.2	2.8	2.5	2.5	3.4
	당기순이익률	2.0	2.2	2.2	1.8	1.7
	제조업	2.6	2.4	3.2	2.8	2.9
	중 국	3.1	3.4	3.1	3.5	3.3
	미 국	0.1	1.3	1.4	0.9	1.7
안정성	부채비율	170.5	165.8	169.9	161.4	164.8
	제조업	152.5	141.5	144.9	131.1	139.3
	중 국	136.2	127.8	129.1	119.0	127.4
	미 국	242.7	218.1	220.9	221.9	222.4
	차입금의존도	26.0	25.9	25.7	25.5	28.0
	제조업	24.1	23.7	22.0	21.9	24.6
	중 국	21.6	21.7	21.5	17.3	20.2
	미 국	33.5	35.7	33.4	36.7	37.3

<참고자료 5>

당행 해외사업관련대출 지원 현황(집행 기준)

(억원)

업종		2011	2012	2013	2014	2015.11월(비중)
제조업	1차금속	6,396	6,916	9,527	4,475	26,745 (20.0%)
	자동차	9,287	8,636	7,307	13,094	10,313 (7.7%)
	전자부품	4,855	4,378	6,161	5,162	5,293 (4.0%)
	기타	25,514	21,015	21,734	30,501	24,686 (18.5%)
	소계	46,052	40,945	44,728	53,232	67,038 (50.2%)
서비스업	금융보험업	-	20,544	29,536	25,978	25,649 (19.2%)
	전기가스업	2,304	5,684	10,915	5,190	6,768 (5.1%)
	도소매업	9,425	4,369	3,506	3,781	5,918 (4.4%)
	운수업	1,442	1,390	2,468	6,066	4,494 (3.4%)
	기타	1,428	3,716	6,255	8,254	14,580 (10.9%)
	소계	14,599	35,703	52,680	49,269	57,409 (43.0%)
1차산업	광업	6,619	4,079	2,631	8,187	8,982 (6.7%)
	농업,임업 및 어업	167	710	485	488	144 (0.1%)
	소계	6,786	4,789	3,116	8,675	9,126 (6.8%)
총합계(업종 전체)		67,437	81,438	100,524	111,176	133,573 (100%)